

# 일본 에도(江戸)·메이지(明治)시대의 눈썹화장의 양상에 대한 고찰\*

- 조선시대 후기 눈썹화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 현정 \*\*

(e-mail: sirayuki@nuch.ac.kr)

---

## 目次

---

1. 서론
  2. 에도(江戸)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의 눈썹화장의 양상에 대해
  3. 조선시대 후기의 눈썹화장의 양상에 대해
  4. 결론
- 

## 1. 서론

현대에서도 화장을 할 때 여자들이 가장 신경 써서 화장하게 되고, 또 남들의 시선이 제일 먼저 가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눈일 것이다. ‘한국여성의 눈썹화장 변화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눈과 눈썹에 대한 통계치 자료를 보면, “귀하는 화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인상의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조사 결과 중 눈이란 답변이 50%에 가까운 수치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눈썹이 25% 전후, 그 다음이 피부, 입술의 순이란 결과가 나왔다.

또한 “귀하는 화장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역시 눈이란 답변이 50% 이상 압도적으로 많고 눈썹이 20% 전후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피부이다.<sup>1)</sup>

---

\* 동 연구결과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일본고전문학 및 고대 민속학 전공

1) 이정균/정수영/김현남(2005) ‘한국여성의 눈썹화장 변화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Vol.1

이처럼 눈화장은 현대 화장법에 있어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화장법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 또한 일본의 전통 화장법 등을 보면, 눈화장보다 더 중요시된 것이 바로 눈썹화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눈에 관한 화장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이새도나 마스크라 등의 도구를 가지고 눈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보급된 서양식 화장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의 화장법에서는 눈보다 눈썹에 관한 화장의 비중이 훨씬 컸던 것이다.

이런 눈썹화장에 관해서는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 일본 쪽 연구를 살펴보면 고대의 화장과 장신구의 역사를 고찰한 『고대인의 화장과 장신구(古代人の化粧と装身具)』<sup>2)</sup>, 일본의 화장문화를 주로 연구하는 폴라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된 『눈썹의 문화사(眉の文化史)』<sup>3)</sup>, 여성의 얼굴과 화장문화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무라사와 히로토(村沢博人)씨의 『얼굴의 문화사(顔の文化誌)』<sup>4)</sup> 등에서 눈썹화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눈썹화장에 관해서는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전완길 씨의 『韓國化粧文化史』<sup>5)</sup>,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에서 간행된 『한국의 화장문화』<sup>6)</sup>, 『20세기 화장문화사』<sup>7)</sup> 등에서 눈썹화장에 대한 연구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눈썹화장에 대한 연구가 화장연구의 일부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후기와 같은 시대 일본의 눈썹화장에 대한 비교연구는 전무하다. 물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간의 화장법에 대한 비교연구도 있다. 그러나 ‘정조시대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화장문화(化粧文化)와 수발문화(鬚髮文化)의 비교 연구’<sup>8)</sup> 또는 ‘조선 전기의 메이크업과 동시대 중국과 일본의 메이크업 비교’<sup>9)</sup>와 같이, 대단히 개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단순비교해 놓은 논문이며, 그나마도 그 수가 극히 적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에도와 메이지 시대의 눈썹화장 문화와, 그와 같은 시대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후기의 눈썹화장에 중점을 두고 상세하게 그 특징을 각각 고찰하고

No.1, p.2

2) 原田淑人(1987) 『古代人の化粧と装身具』, 刀水書房

3)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5) 『眉の文化史』, ポーラ文化研究所

4) 村沢博人(2007) 『顔の文化誌』, 講談社

5)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6) 코리아나(2006) 『한국의 화장문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7) 김지희(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8) 김민경(2009) ‘정조시대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화장문화(化粧文化)와 수발문화(鬚髮文化)의 비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8 No.1

9) 진형여/ 김희정(2009) ‘조선 전기의 메이크업과 동시대 중국과 일본의 메이크업 비교’ 한국인체예술학회지, Vol.10 No.4

두 나라의 눈썹 화장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 그런 화장문화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시대배경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후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나누는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년- 1598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를 후기로 보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 이 조선시대 후기와 같은 일본의 시기는 바로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와 메이지(明治時代, 1868-1912년)이다. 즉 1603년부터 메이지시대가 끝나는 1912년까지를 임진왜란 이후인 1598년부터 1910년까지인 조선시대 후기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로 비교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 화장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눈썹에 관련된 화장을 주제로 고찰하되, 특히 에도(江戸), 메이지(明治)시대와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눈썹화장의 경우 비슷한 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보이며, 그런 문화를 낳게 된 시대배경도 존재한다. 그런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양 나라간의 눈썹화장의 특징이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2. 에도(江戸)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의 눈썹화장의 양상에 대해

일본이나 한국이나 고대의 화장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화장문화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으며, 그 영향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우선 에도시대 이전의 일본의 눈썹화장이 어떤 형태였는지 간단히 고찰하고 가도록 하겠다. 고대 중국의 눈썹화장에는 인도에서 전래된 청대(粉黛)를 바르는 푸른 눈썹(靑眉)과 황색 눈썹(黃眉), 붉은 눈썹(紅眉) 등이 있었으며, 당나라 시대에는 현종황제가 화공에게 ‘십미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했을 정도로 눈썹화장이 발달했다.

일본에도 이런 당나라식 눈썹화장이 전해졌지만, 점차 일본 고유의 눈썹화장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눈썹을 뽑고는 미묵으로 눈썹을 그렸으며 이런 내용은 『고지키(古事記)』, 『니혼쇼키(日本書紀)』, 『만요슈(万葉集)』 등의 고대 문헌에 ‘마요히키(まよひき)’ ‘마요가키(まよがき)’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후 헤이안(平安) 시대(794-1185)가 되면 계급표현의 수단으로 눈썹을 뽑았으며, 이마 위쪽으로 새로운 눈썹을 그렸다. 헤이안시대에는 이런 눈썹화장은 상류계급의 여성들뿐만이 아니고, 궁정귀족 계급의 남성들도 행했다.<sup>10)</sup>

헤이안 시대의 각종 문헌에는 눈썹이나 눈썹화장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 눈썹화장에 관련된 작품 중 주목할 것은 『쓰쓰미추나곤모도가타리(堤中納言物語)』에 실린 10개의 단편 중 ‘하이즈미(はいずみ)’란 제목의 이야기이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부

10) 日本風俗史学会(199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614

인을 두고 있던 한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애인으로 두게 된다. 어느 날 낮에 갑자기 예고 없이 새 여자의 집으로 가자, 너무 당황한 여자가 거울도 보지 않고 급하게 화장을 하다가 그만 분과 눈썹에 칠하는 솜을 거꾸로 칠한다.

“갑자기 나리가 오셨습니다.”라고 시녀가 말하자, 여자는 편하게 쉬고 있던 터라 너무나 당황해서, “뭐지, 어디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화장 상자를 끌어당겨서 분을 칠한다고 하는 것이, 미목이 보관되어 있던 종이를 잘 못 집어 들고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이 얼굴에 마구 칠했다.<sup>11)</sup>

여기를 보면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분을 칠하고 눈썹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장순서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이런 화장형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 미목을 보관하는 곳은 ‘다토가미(墨紙)’란 종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 다토가미란 두꺼운 일본 종이에 감물이나 옷 등을 칠해서 접은 싸개를 말하며, 옛날부터 여자의 자질구레한 소도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다. 예를 들어 옷이나 천 조각, 화장 도구, 머리 묶는 기구 등을 넣었는데, 여기서의 미목을 이런 다토가미 속에 보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눈썹화장에 관련된 문헌은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헤이안 시대 대표적인 고전작품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보면 소녀의 눈썹을 묘사하는 장면이

눈썹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된 것이 기품있고 아름답다.<sup>12)</sup>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들에서 얼굴을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눈썹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정리된 얼굴에서 기품과 미를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눈썹화장에 있어 먼저 선행되는 것은 눈썹을 제거하는 것인데, 당시 문헌을 통해 눈썹을 제거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헤이안 시대부터 족집게로 뽑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가, 근세시대가 되어 면도칼이 보급되면서 면도칼로 밀기도 했었다.

헤이안 시대의 유명한 여류 수필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의 81단인 ‘애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의 단에 ‘눈썹을 뽑다(眉ぬく)’<sup>13)</sup>란 표현이 분명히 보이며, 또 72단의 ‘좀처럼 없는 것’의 단에 보면 ‘털이 잘 뽑히는 은으로 된 족집게(毛のよく抜くるしろがねの毛抜き)’란 표현이 있다. 이 털 뽑는 족집게란 표현이 나온 단이 좀처럼 없는 것들을

11)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落窪物語・堤中納言物語』, 小学館 p.497

12)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1』, 小学館 p.305

13)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枕草子』, 小学館 p.149

나열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이런 족집게가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털을 뽑기 위한 족집게가 존재했음을 잘 알려준다.

이와 같은 당시 여러 문헌들에서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에서 이미 눈썹을 뽑아서 화장을 하는 것이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헤이안 시대가 지나고 중세시대(1192-1603)가 되면, 눈썹화장도 궁정 귀족에서 신관(神官), 무녀 및 무가의 처녀나 유녀들에게까지 퍼지게 된다. 중세시대에는 중심세력이 귀족계급에서 무사계급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궁정 귀족들이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눈썹화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권위라는 것이 많이 상실되었었다. 그래서 눈썹화장도 단지 신분이나 계급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sup>14)</sup>

무사들이 중심이 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헌에서도 보면 여자들의 화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적으며, 여자들의 눈썹화장에 대한 기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는 군키노모가타리(軍記物語)라고 해서, 『다이헤이키(太平記)』 등 전쟁을 주제로 서사적으로 엮은 소설이 많이 쓰여짐에 따라 소설의 주인공이 전쟁을 하는 남성들의 눈썹화장에 대한 기술은 가끔 찾을 수 있다.

남성들의 눈썹화장, 특히 무사들의 눈썹화장은 힘차고 용맹한 인상을 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당연히 굵고 짙으며 남성적인 힘을 나타내는 형태로 그려졌었다. 당시의 작품들 속에서도 주로 ‘큰 눈썹(眉大)’나 ‘두꺼운 눈썹(眉太)’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세시대에도 눈썹을 뽑고 다시 그려넣는 작업을 할 때 유행이 여러 번 변했다. 가마쿠라(鎌倉) 시대에는 눈썹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이마 가장자리와 눈의 거의 중간 지점에 눈썹을 크게 그렸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썹도 두꺼워지고 이마 가장자리에 가까워진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68-1603)가 되면 눈썹이 완전히 이마 위로 올라가서 거의 이마의 가장자리 바로 밑에 굵게 그려졌다.<sup>15)</sup>

이런 형태를 거쳐 근세시대, 즉 에도(江戸)시대(1603-1868)가 도래한다. 헤이안 시대만 해도 굵고 두꺼운 눈썹이 유행했으나, 에도시대가 되면 전반적으로 두껍지 않고 긴 눈썹이 아름답다고 생각되게 된다. 이는 당시의 우키요에(浮世絵) 등의 미인화를 보면 비교적 미인화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눈썹의 형태이다. 또한 당시에는 눈썹으로 기혼자인지 아닌지 결혼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었다.

『에도미인의 화장술(江戸美人の化粧術)』에는 당시 여성의 경우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혼자 판별법이 나와 있다. 당시에는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있으면 기혼자라고 생각을 했었다. 또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눈썹을 밀었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이빨이 검은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얼굴을 보면 한눈에 눈썹이 있

14)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5) 『眉の文化史』, ポーラ文化研究所, p.7

15) 村澤博人(2010), 송태욱 옮김 『미인의 탄생 : 얼굴로 읽는 일본, 일본문화』, 너머북, p.92

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으며, 혼인의 여부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다.<sup>16)</sup>

즉 여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형태에 맞추어서 눈썹의 모양을 다듬었으나, 아이를 낳게 되면 눈썹을 밀어버렸고 이전 시대처럼 이마에 새로운 눈썹을 그리거나 하지도 않았다. 당시 눈썹을 미는 행위 자체가 출산을 하여 완전한 성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겐푸쿠(元服)는 일본말로 성인식을 말하는데, 실제로 에도시대에는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오히구(お歯黒)를 하면 반겐푸쿠(半元服), 눈썹을 밀어야 완전한 겐푸쿠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고찰해 본 바와 같이 헤이안 시대에는 귀족계급이 중심이 되었었고, 중세시대에는 무사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행해졌던 만큼 서민층은 시간이 걸리고 사치스런 화장이란 문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에도시대가 되면서 서민들이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해 화장 관련 문화도 점점 서민들이 주류가 되어 행해지게 된다. 이것이 에도시대 화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도시대의 남성들의 경우, 일반서민 층에서 눈썹을 미는 것은 가부키 무대 등에 서는 배우 정도였다. 그러나 1772-82년 사이에 눈썹을 밀든가 뽑든가 해서 가늘게 정리한 눈썹이 유행했다.<sup>17)</sup> 또한 원래 궁정 귀족 여자들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눈썹을 밀고 이마 위쪽으로 별도의 눈썹을 그렸다. 이는 이전 시대의 눈썹그리는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풍습이 서민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으며, 눈썹을 미는 연령이 좀 더 빨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가 되면 무가사회에서 눈썹 화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중시되게 된다. 당시 무가의 여성들에게는 눈썹 화장법이 아주 중요했으며, ‘눈썹그리기’란 말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눈썹 화장이 화장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즉 예전에는 귀족사회에서 행해졌던 방법이나 미의식이 다음 시대의 지배층에 계승되고 동시에 그것이 서민에게까지 내려가 일반 풍속으로 자리잡은 것이다.<sup>18)</sup>

이런 눈썹화장법도 에도 시대 후기가 되면서 점차 많이 간략화되고 신분이 높은 여자들이나 궁중 귀족 등을 제외하고는 엄격한 규정 등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 간다.

이처럼 눈썹화장이 중요했다는 점은 당시 쓰인 문헌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눈썹 화장만을 주제로 한 책이 『화장 눈썹 만들기 구전(化粧眉作口伝)』, 『눈썹 만들기의 순서(眉作之次第)』, 『화장 눈썹 만들기(化粧眉作)』 등의 이름으로 쓰여졌다. 또한 에도시대 후기에 쓰인 『도시 풍속 화장전(都風俗化粧伝)』이란 책을 보면 신체의 여러 부분에 대한 화장법이 소개되어 있고, 그 중 눈썹화장에 대해서도 소개가 자세히 되어 있다.

당시 유행했던 눈썹 화장 형태에 대해서는 1813년에 출판된 에도시대 후기의 미용서 『도시 풍속 화장전(都風俗化粧伝)』에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다. 이 책의 ‘화장의 부(化粧之部)’

16) 陶智子(2005) 『江戸美人の化粧術』, 講談社, p.80

17)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5) 『眉の文化史』, ポーラ文化研究所, p.51

18) 村澤博人(2010) 『미인의 탄생 : 얼굴로 읽는 일본, 일본문화』, 너머북 p.92

에서 ‘눈썹을 만드는 먹의 전(眉毛を作る墨の伝)’에 보면 눈썹을 그리는 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보리 이삭이 썩어서 검게 된 것을 손으로 비벼서 가루로 만든 것이나, 등잔 등의 등화의 유연(油煙)을 미묵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다. 등화의 유연을 얻는 방법은 등화의 심지를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켜서 그 불 위에 종이를 대고 유연을 얻는다. 심지를 너무 많이 켜서 얻은 유연은 거칠어서 좋지 않다고 되어 있다.<sup>19)</sup>

또 당시 상류계급에서 눈썹을 그릴 때는 반죽한 먹(こね墨)을 사용했었는데, 달개비꽃이나, 홍화, 유연 등을 참기름으로 반죽한 먹을 말한다. 또는 금박 약 11g과 유연 15g을 참기름으로 반죽한 것도 있다.<sup>20)</sup>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급의 미묵으로는 일본어로 ‘마코모(真菰)’, 우리말로는 줄이라고 하는 식물로 만든 먹이 있었다. 이 줄이라는 식물의 잎은 추석 때 불전의 돛자리로 사용된다. 줄의 줄기의 아랫부분에는 흑도균(黑稻菌)이 기생해서 검은 색으로 비대해지는데 이 속에 포함된 포자를 끄집어내어서 만든 것이 마코모묵(真菰墨)이며, 주로 미묵이나 그림물감으로 사용되었다.<sup>21)</sup>

눈썹을 제거하는 도구로는 헤이안 시대에 이미 족집게로 눈썹을 뽑아서 화장을 하는 것이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에도시대에는 면도칼이 등장해서 족집게와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의 우키요에 등의 그림을 보면 족집게로 눈썹을 뽑는 모습이나 면도칼로 눈썹을 미는 모습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에도시대 이전에는 면도칼이 승려의 삭발에 이용되었는데 족집게는 두발이나 눈썹, 턱수염 등을 뽑는데 사용되었다. 일부에서는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서 언급된 것처럼 은제 족집게도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청동제 족집게가 사용되었다. 에도시대에는 철제 족집게가 보급되었으며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면도칼도 에도시대에 들어서면서 널리 보급되게 된다. 편리한 면도칼이 일반화되면서 족집게는 머리카락을 정돈하거나 눈썹을 정리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범위가 축소되게 되었다.<sup>22)</sup>

이번에는 눈썹의 모양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도시 풍속 화장전(都風俗化粧伝)』의 ‘눈썹을 만드는 전(眉毛を作る伝)’에는 얼굴모양에 따라 다르게 눈썹 모양 그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둥근 얼굴이나 짧은 얼굴의 경우는 가느다란 초승달 모양으로 눈썹을 그리고, 긴 얼굴이나 얼굴이 큰 사람은 약간 두껍게 눈썹을 그린다고 되어 있으며, 얼굴 아래가 살찐 사람은 눈썹을 두껍게 그리고 오이처럼 긴 얼굴은 약간 연하게 그리도록 말하고 있다. 즉 너무 두꺼운 눈썹은 천하게 보여서 좋지 않지만, 그 얼굴 형태에 맞게 그리는 것이 최고이므로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sup>23)</sup> 이처럼 당시에도 일률적인 눈썹화장이 아니라, 얼굴

19)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p.85~93

20)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 ポーラ文化研究所, p.96

21)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5) 『眉の文化史』, ポーラ文化研究所, p.52

22) 2008 『世界大百科事典』 「毛抜き」, 平凡社

형태에 맞추어 적절하게 어울리는 눈썹모양을 그리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에 그려진 우키요에를 보면 공통적으로 미인화의 눈썹은 비교적 두껍지 않고 가늘고 길며 둥근 모양의 눈썹을 하고 있는 것이 많으나, 수많은 우키요에를 두루 살펴보면 일괄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알게 된다. 나이나 얼굴 형태에 따라 굵기나 형태, 위치 등이 미묘하게 다른 것도 많아서 당시 눈썹형태의 다양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에도 300년의 여성미-화장과 머리형(江戸三〇〇年の女性美 — 化粧と髪型)』이란 책에 보면, 우키요에에서 볼 수 있는 눈썹의 변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1970년대 초기 그려진 화가들의 우키요에의 경우 대부분 가늘고 둥근 일자의 선과 같은 눈썹형태로 그려지고 있다. 표정이 좀 더 다양해지는 것은 1787-90년경 부터인데 눈썹과 눈썹 사이를 좁게 하고 두꺼운 눈썹모양으로 표현하거나, 반달 모양의 눈썹으로 그리거나, 약간 둥근 형태의 눈썹모양으로 그리거나 해서 여자들의 얼굴을 각각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잘 나타내어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sup>24)</sup>

이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도, 우키요에에서도 천편일률적인 눈썹모양보다는 개인의 얼굴형과 개성을 잘 살린 눈썹모양이 다양하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눈썹이 없는 미인화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주로 새댁이나 아름다운 중년여성을 그린 그림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모녀를 그린 그림 등에도 보면 어머니 쪽은 눈썹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 먹은 여자나 결혼한 여자를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눈썹이 그려진 우키요에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미인화를 그릴 때의 일종의 약속같은 것으로 원래는 눈썹이 없지만 눈썹을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에도시대 사용되었던 눈썹을 그리는 먹은 보리 이삭이 썩어 검게 된 가루나, 등화의 유연등을 사용했던 것으로 검정색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눈썹은 자체 색깔도 검은 편이고, 또 눈썹을 그리는 먹도 검은 색으로 표현했지만, ‘아오마유(靑眉)’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눈썹을 밀게 되면 눈썹은 없어져도 다른 얼굴피부처럼 그 자리가 완전히 매끈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 자국이 면도를 하고 난 자국처럼 파란 자국이 남는다. 그 위에 눈썹을 그리지 않은 상태를 아오마유라고 표현했었으며, 또 ‘청대(靑黛)’라고 하는 용어도 있었다. 이는 주로 연극이나 우키요에(浮世絵) 등에서 눈썹을 민 자리를 열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푸른 색의 눈썹 또는 안료(顔料)를 일컬었다.

이렇게 에도시대까지 지속되어 오던 눈썹화장법은 메이지(明治)시대(1868년- 1912년)가 되면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명치유신(明治維新)이 있었던 1868년과 1870년에는 ‘다이조칸(太政官) 포고’를 통해 궁중에 출사하는 사람들과 화족(華族)들에 대해서 ‘이를 물들이거나 눈썹을 미는 것’이 야만적인 풍습이라 하여 금지시켰다. 또한 1873년에는 쇼켄(昭憲)황태후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솔선하여 이를 검게

23)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191

24) 村田孝子(2007) 『江戸三〇〇年の女性美 — 化粧と髪型』, 青幻舎, p37

물들이거나 눈썹을 미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화장법으로 자리잡았던 풍습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런 사실은 당시의 미용서인 『日本女禮式大全』<sup>25)</sup>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눈썹을 미는 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눈썹을 그대로 보존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 눈썹의 모양에 따라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으므로 눈썹의 모양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점, 이빨을 검게 물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두꺼우면서 반달 모양같은 둥글며 자연스러운 눈썹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사진들을 보면 서양의 영향으로 두꺼우면서도 눈썹의 모양을 많이 변형시키지 않은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눈썹을 미는 풍습이 없어졌다고 해서 눈썹화장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며, 눈썹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보면 될 것이다.

### 3. 조선시대 후기의 눈썹화장의 양상에 대해

중국의 미의식이나 눈썹에 대한 화장방법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시대에도 그 영향은 여전히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화장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분대(粉黛)’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본래 ‘백분과 눈썹을 그리는 미묵(眉墨)’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 단어가 분을 칠하고 눈썹을 그리는 것이 화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임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 하겠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문헌들이다. 조선시대의 시조나 당시 문헌을 보면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가꾸는 모습을 표현할 때,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조선시대의 여류시인인 이 옥봉의 ‘까치소리’란 시를 보면

약속을 하고 입은 오지 않네  
 뜰의 매화꽃이 다 저가는데  
 문득 나무 위 까치소리를 듣고  
 부질없이 거울 속 눈썹을 그리네<sup>26)</sup>

매화꽃이 필 무렵에 만나자고 약속해 놓고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심정을 노래한

25) 坪谷善四郎(1897) 『日本女禮式大全』, 博文館, p.212

26) 曹斗鉉 역(1994) 『한국 女流 漢詩選』, 태학당, p.115

시조이다. 까치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화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거울보고 눈썹을 그리는 행동이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김 삼의당이란 여인이 지은 ‘봄을 괴로워하는 노래(春惱曲)’이란 시를 보면

공작병풍 깊숙이 잠은 더던데  
 밤이 되면 봄 꿈은 부시(衆慰)뿐이네  
 햇살은 발을 뚫어 새어들고요  
 나무에 가린 새소리 기괴하구나

나에게 언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굴 위해 눈썹을 그리겠는가  
 늘어진 버들은 그리는 한 알지 못하여  
 긴 가지가 문 앞을 향하는도다<sup>27)</sup>

이는 화장을 해도 예쁘게 봐 줄 님이 안 계신 외로움을 노래한 시조인데, 여기서도 거울보고 눈썹그리는 행동이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류의 표현은 당시 유행했던 문구인 듯 다수의 시조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눈썹을 그리는 행위가 화장하는 것 자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이런 표현들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런 예들이 당시 화장하는 단계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과 여성들이 느꼈던 상징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눈썹화장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이용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당시의 눈썹화장에는 미묵(眉墨)이란 것이 사용되었다. 현대처럼 아이펜슬같은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미묵을 붓으로 그리는 것으로 눈썹화장이 이루어졌다.

이 눈썹화장에 사용되었던 미묵의 재료는 꽃잎을 태운 재나 아궁이나 굴뚝 안에 생긴 그을음, 또는 쪽으로 만든 먹 등을 사용했다. 이런 다양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검은 색이나 짙은 밤색, 검푸른색 등의 다양한 색으로 표현이 가능했었다. 이런 눈썹 화장은 눈썹벼루에 미묵과 기름을 개어 필요에 따라 유연(油煙), 홍화(紅花)나 금가루 등과 적당히 배합해서 솔로 그렸다.<sup>28)</sup>

당시는 사서 쓰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미묵을 직접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유연(油煙)이란 것은 광물유(鑛物油)나 송진 등을 불완전 연소시킬 때 생기는 탄소 가루를 말하는데, 당시는 관솔을 태워 얻은 그을음 등을 모아

27) 金智勇(1991) 『한국의 女流 漢詩』, 여강출판사, p.340

28) 코리아나(2010) 『한국의 화장도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p.25

서 만든 검은색의 안료(顔料)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목을 만들 때는 겨울과 여름을 피하고 바람 불고 비오는 날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잘 마르지 않고 여름에는 상하기 쉬우며 바람이 불고 비오는 날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눈썹화장은 당시 눈썹술과 길이를 적당히 다듬은 후에 버들잎 모양으로 둥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다. 여자의 눈썹이 진하고 술이 많은 경우에는 족집게로 일부를 뽑거나 가다듬은 다음에 화황(花黃)을 발라 부드럽고 옅은 색을 냈고, 반대로 흐린 경우에는 굴참나무 또는 너도밤나무의 목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고급의 미목은 관솔에서 얻은 유연을 평지씨 기름에 갠 것이었다. 이 밖에 목화의 자색 꽃을 태운 재를 참기름에 개기도 하고, 보리 낱부기를 솔잎 태운 유연과 개어서 만들기도 했다.<sup>29)</sup>

눈썹화장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사용되었는데, 식물을 태워서 만든 재의 색에 따라 다른 색들이 표현되었으며, 검정색 미분 위에 황분을 발라서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도 했다. 또 이들 재료들은 관솔에서 나오는 유연이나 참기름 등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개어서 사용되었다. 눈썹화장의 재료가 되는 미목 중 가장 고급은 달개비 꽃잎을 태운 재와 참기름을 개어 만든 송연묵이었으며, 서민들은 아궁이의 숯검댕이나 보리 낱부기를 이용했는데, 이 재료들은 고급 제품에 비해 잘 지워졌다.<sup>30)</sup>

미목을 바르면 눈썹이 너무 검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당시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화황(化黃)이란 것을 사용했다. 이 화황이란 것은 누런색의 분을 말하는데, 눈썹을 다듬은 후에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 미목 대신 또는 미목과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선호했던 눈썹모양에 대해서는 『규합총서(閨閣叢書)』란 책에 자세히 그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규합총서』는 1809(순종 9)년에 조선시대 실학자인 빙허각 이씨가 사대부집 부녀자를 위해 엮은 일종의 여성생활백과라고 할 수 있다. 음식 만들기에서부터 염색하고 옷 만드는 법에 이르기까지 부녀자가 알아야 할 많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며, 현대 학자들이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규합총서』 속에 ‘십미요(十眉謠)’라고 하여 10가지 눈썹형과 그에 대해 설명이 부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존재했던 눈썹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문은 『閨閣叢書』에서 인용한다.

한 무제(漢武帝)가 궁인으로 하여금 팔자미(八字眉)를 짓게 하고, 양기처(梁冀妻) 취미(翠眉)를 고쳐 수미(愁眉)-근심하는 눈썹-를 만들고, 탁문군(卓文君)이 미색(眉色)이

29)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102

30) 전 선경 외(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301

원산(遠山)같으므로 남들이 본받아 원산미(遠山眉)를 지으며, 위 무제(魏武帝)는 나인으로 하여금 청대미(靑黛眉)를 그리게 하고, 속으로 연하여 가늘고 긴 것을 아미장(蛾眉粧)이라 하더라.

오대(五代) 궁중에 개원(開元) 어애미(御愛眉)와 소산미(小山眉)와 오악미(五嶽眉)와 월릉미(月稜眉)와 분초미(分稍眉)와 함연미(涵烟眉)와 봉지(鳳池) 원리(苑梨)등의 천문수미(千紋秀眉) 있고, 당 명황(唐明皇)이 화공으로 하여금 열가지 눈썹을 그리게 하니 일은 이른 바 원앙미(鴛鴦眉) 또는 팔자미(八字眉)요, 이는, 소산미(小山眉) 또는 원산미(遠山眉)라 하고, 삼은 오악미(五嶽眉)요, 사는 삼봉미(三峰眉), 오는 수주미(垂珠眉), 육은 월릉미(月稜眉) 또는 각월미(却月眉)라 하고, 짙은 분초미(分稍眉), 팔은 함연미(涵烟眉), 구는 불운미(拈雲眉)요, 십은 도훈미(倒暈眉)라 하니,<sup>31)</sup>

이를 보면 여기에 인용되는 눈썹모양들이 한나라나 위나라 등의 중국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1부터 10까지 이름이 불리는 눈썹들이 십미요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 십미요는 원앙(鴛鴦), 소산(小山), 오악(五嶽), 삼봉(三峰), 수주(垂珠), 월릉(月稜), 분초(分稍), 함연(涵烟), 불운(拂雲), 도훈(倒暈)이란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각 눈썹들에 대해 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십미요의 눈썹모양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원앙(鴛鴦) ; 원앙이 나니 물결이 일어나는구나. 연기 이 날에 오히려 고우니 근심이 아리따운 눈썹에 무르녹느니 두 원앙이어라.
- 2) 소산(小山) ; 춘산(春山)이 비록 적으나 구름머리에 일어났구나. 쌍아(雙娥) 이 같으니 능히 한가한 근심을 실었구나. 산 위에 비 오니 눈썹이 또 응하더라.
- 3) 오악(五嶽) ; 군봉(群峰)이 참치(參差)하니 오악이 균지하네. 가을 문채 물결이 높은 산만 같지 못하리라. 저 눈썹이 길미여, 자주 찡기지 마라.
- 4) 삼봉(三峰) ; 바다 위 삼산(三山)을 바라보니 아득히 채색이 나는구나. 옮겨 거울을 마주보니 눈에 비치는구나. 은해(銀海-눈) 마르면 삼봉이 사라지리.
- 5) 수주(垂珠) ; 다섯 말 진주로 아미(蛾眉)를 샀네. 빌어 묻노니, 아미를 무엇에 비갈고 군전에 십이승을 비취리라.
- 6) 월릉(月稜) ; 눈썹은 안보이나 달만 보이네. 월궁(月宮)의 도끼 흔적이 닦아 이지러졌으니 미인의 눈썹 위에 별렸구나.
- 7) 분초(分稍) ; 꾀(山)를 그려 쌍봉(雙鳳) 같으니 푸른 것이 떨어져 맑기 내 같도다. 그린 눈썹 모름지기 이와 같으니 홍지액상(紅脂額上)에 춘산(春山)이 오네.
- 8) 함연(涵烟) ; 눈썹이 나에게 이르기를 맑게 지으면 가을비 소슬한 내갈고 화려코자

31) 빙허각 이씨 원저, 鄭良婉 옮김(2006) 『閨閣叢書』, 보진재, p.228

하면 봄바람에 맑은 세 뿔뿌리(巖)로구나.

9) 불운(拂雲) ; 꿈에 고당(高堂)에 노니 구름기운이 바로 눈썹에 당하였네. 새벽바람이 부되 끊어지지 아니하네.

10) 도훈(倒暈) ; 장대(粧臺)에 섬월(纖月)이 높았고 옥니에 청점이 길었네. 가는 손으로 거울을 마주하니 아름다운 봄바람이 몇번이나 그렸는지.<sup>32)</sup>

이렇게 눈썹을 표현한 묘사를 보면, 참으로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묘사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이 서술만으로는 각각의 눈썹모양이 실제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덟팔자 눈썹이라든가, 두껍게 어떤 위치에 그린단가 하는 설명이 되어 있으면 쉽게 이미지가 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각각의 이름에 대해 그림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조선시대 문헌의 경우 화장문화에 관한 자료나 언급이 극히 부족하고, 당시 민화 등의 그림에서도 눈썹화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조선시대 문헌에서 이처럼 문학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 눈썹에 대해 10가지나 그 모양과 이름 등을 자세하게 읊고 있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눈썹화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눈썹화장을 하거나 미목을 만드는 법이 발달했었다는 것은 그만큼 얼굴화장에서 눈썹화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전완길 씨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요즘은 눈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색도우를 바르거나 갖가지 화장품을 사용해서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살리는데, 예전에는 화황을 눈두덩이나 이마에 발라서 약간의 입체감을 살렸을 뿐이다.<sup>33)</sup> 즉 당시는 눈썹화장의 중요성에 비해 눈 화장 자체의 중요성은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번엔 당시 유행했던 눈썹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앞서 고찰한 『규합총서』에는 십미요(十眉謠)의 눈썹형태가 10가지나 되는데, 그 중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눈썹모양으로 칭해졌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단지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진 여러 미인도나 민화 속의 여자들의 눈썹 모양을 종합해 보면, 미인의 눈썹은 가늘고 반달처럼 둥그렇게 휘어진 모습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그려진 여러 미인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화가로 신윤복이나 이인문의 미인도, 또 작자미상의 미인도의 그림들을 보면, 한결같이 가늘고 반달형으로 둥그렇게 그려진 눈썹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시대의 벽화 등의 여인그림을 보면 조선시대보다는 눈썹이 짙고 굵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달모양으로 길게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5세기 후반경에 지어진 것

32) 빙허각 이씨 원저, 鄭良婉 옮김(2006) 『閨閣叢書』, 보진재, p.229

33)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102

으로 추정되는 평남 강서군 수산면 수산리의 고구려 시대 벽화고분의 여인들의 눈썹모양이나, 쌍영총 벽화에 보이는 귀부인 공양행렬의 귀부인들의 눈썹모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곡선형태의 가느다란 둥근 눈썹이 가장 아름다운 눈썹형태로 여겨졌고, 이런 미의식이 미인도의 눈썹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의 문헌들 중에서 미인을 묘사한 작품들을 찾아보면 얼굴이나 자태, 헤어스타일 등에 대해 묘사한 더러 보이지만, 얼굴이나 눈썹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중 『옥단춘전』이라고 하는 고전고설에서 신임 감사가 부임하자 아름답게 단장한 평양기생들이 등장하는 장면묘사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영축하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의 평양 기생들은 각별히 곱게 단장하고, 구름 같은 눈썹을 여덟 팔(八)자로 다듬고, 옥 같은 연지 불은 두 이(二)자로 방그레 웃어 반만 벌리고서, 흰 모래밭에 금자라 같은 걸음으로 아기작아기작 왕래하니 어느 눈이 황홀하지 않으랴.<sup>34)</sup>

여기서 보면 여덟팔자의 눈썹이 미인의 눈썹으로 묘사되고 있다. 팔자춘산(八字春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는 여덟 팔자 모양의 봄 산이라는 뜻으로 미인의 눈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에서 전해진 미인의 눈썹형이 그대로 형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여자의 눈썹을 묘사할 때 팔자청산(八字靑山) 또는 팔자춘산이란 고사성어를 사용해서, 당시 소설이나 문헌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러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후기에도 선호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눈썹모양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타고난 눈썹이 당시 추구하는 미인형 눈썹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눈썹은 흔치 않다. 결국 그런 미인의 눈썹에 가깝게 형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눈썹을 제거하는 도구를 가지고 눈썹을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의인화 소설인 『여용국전』을 보면, 여인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얼굴의 때와 이마와 눈썹의 털 등이 등장하고 있다.<sup>35)</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눈썹의 털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도 마찬가지이지만, 눈썹을 밀거나 뽑는 것으로 인해 이상적인 눈썹모양에 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지저분한 눈썹이나 눈썹 주위의 털 등을 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 의하면 당시 이마와 눈썹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족집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sup>36)</sup> 거울을 보고 족집게를 사용해서 눈썹을 뽑는 작업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

34) 구인환 편(2004) 『옥단춘전』, 신원문화사, p.16

35)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2010) 『여용국전/어득강전/조충의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p.39

만, 눈썹이 금방 자라므로 부지런해야만 한다. 지속적으로 눈썹을 뽑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지지분해고, 또 미묵으로 눈썹모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도 아름답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눈썹화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동반되어야 했을 것이다.

『여용국전』에서 족집게는 눈썹뿐만이 아니고 이마의 털도 뽑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마의 털도 역시 제거하는 편이 깔끔하고 환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시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규합총서』에도 여자에 관련된 물건을 열거하는 중에 ‘보섭(寶鑷)’이라고 하여 족집게에 대한 표현이 보인다.

원술(袁術)의 희첩(姬妾)은 풍방(馮方)의 딸인데 천금(千金) 보섭(寶鑷)이 있어 빛을 더 하더라.<sup>37)</sup>

보섭이란 보배로운 족집게란 말이다. 이처럼 족집게가 당시 여자들이 눈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되는 미묵의 재료나 눈썹모양 등은 현대와 다르지만, 당시에 눈썹을 다듬고 이상적인 모양으로 미묵을 사용해서 그리는 형태는 현대의 화장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시대에 따라 눈썹 모양의 유행이나 사용된 미묵의 재료 등에는 차이가 있어도, 눈썹화장의 근본적인 방식은 조선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이상 일본의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의 눈썹화장의 양상과 조선시대 후기의 눈썹화장에 대해 각각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를 정리해서 비교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겨난 시대배경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하고자 한다.

양국의 눈썹화장의 양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문헌이나 그림에서 눈썹화장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가나가 일찍 발명되어 헤이안시대부터 많은 문헌이 남아 있고 에도시대까지 수많은 문헌에서 눈썹화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에도시대에 이미 일반인들에게 자세히 화장법을 알려주는 문헌까지 다수 만들어졌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극히 일부의 소설이나 문헌에서 눈썹

36) 주 35와 같음. p.40

37) 병허각 이씨 원저, 鄭良婉 옮김(2006) 『閨閣叢書』, 보진재, p.238

모양이나 화장법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기술이나 자료는 극히 드물다. 또한 그림의 경우에도 일본의 우키요에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미인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인도 자체가 몇 개 안되며 다른 민화 등에서 여성의 얼굴을 참고로 하여 눈썹모양을 추측해 낼 수 있는 정도라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의 경우 참고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문헌과 소설, 당시의 미인도와 화장문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비교결과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두 나라의 긴밀한 영향관계와 인접성 때문인지 눈썹화장에 있어서 대단히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후기와 에도시대, 메이지 시대의 눈썹화장에는 미묵(眉墨)이란 것이 사용되었고 현대처럼 아이펜슬같은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미묵을 붓으로 그리는 것으로 눈썹화장이 이루어졌다. 이 눈썹화장에 사용되었던 미묵의 재료는 꽃잎을 태운 재나 아궁이나 굴뚝 안에 생긴 그을음, 또는 쪽으로 만든 먹 등을 사용했다. 눈썹 화장은 눈썹벼루에 미묵과 기름을 개어 필요에 따라 유연(油煙), 홍화(紅花)나 금가루 등과 적당히 배합해서 솔로 그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미묵의 재료를 비교해 보면, 유연을 사용하는 점이나 참기름에 개는 방식, 달개비를 사용하는 것이나 참기름으로 갠 유연에 금가루를 넣고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점 등이 대단히 비슷하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눈썹을 붓으로 그리는 점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눈썹을 정리해서 모양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의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도 족집게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도 후기에 가까워질수록, 또 일본의 경우 에도시대 후기에 가까울수록 족집게보다 면도칼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도구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눈썹모양에 대해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규합총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10가지 눈썹형태의 십미요나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진 수많은 미인도, 문헌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미인의 눈썹은 가늘고 반달처럼 동그랗게 휘어진 눈썹이나 여덟팔자의 눈썹 등이 미인의 눈썹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눈썹모양은 눈썹술과 길이를 적당히 다듬은 후에 버들잎 모양으로 둥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자의 눈썹이 진하고 술이 많은 경우에는 족집게로 일부를 뽑거나 가다듬은 다음에 부드럽고 옅은 색을 썼고, 반대로 흐린 경우에는 좀 더 진하게 표현했다. 일본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두껍지 않고 길고 둥근 형태의 눈썹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는데, 일률적인 눈썹화장이 아니라 얼굴 형태에 맞추어 적절하게 어울리는 눈썹모양이 그림과 함께 당시 문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눈썹화장이나 모양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는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바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화장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점이다. 고대 중국에서 화장법과 화장문화, 도구와 재료 등도 전부 중

국에서 전래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양국은 중국과의 교류와 영향 속에서 화장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화장문화의 큰 틀은 비슷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의 눈썹화장과는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일본에서는 눈썹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눈썹을 그 위에 그린다는 독특한 화장법이 고대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눈썹화장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연결된다. 그 차이점이란 에도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형태에 맞추어서 눈썹의 모양을 다듬었으나, 아이를 낳게 되면 눈썹을 밀어버렸던 점이다. 그래서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이를 낳은 여자인지 아닌지를 눈썹의 유무로 금방 판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고찰했듯이 에도시대까지 지속되어 오던 이런 눈썹화장법도 메이지시대로 들어오면서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금지되게 되고, 눈썹을 미는 화장법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썹을 미는 화장법이란 것이 일본에서만 보이는 것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에는 바로 눈썹을 미는 화장법 자체가 헤이안시대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존재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에서는 어느 시대에도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 눈썹을 그리는 화장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헤이안시대부터 남자든 여자든 눈썹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마 중간 부분에 굵고 짙은 눈썹을 그려넣는 독특한 화장법이 이미 존재했고, 중세시대를 거쳐 에도시대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에도시대에는 비록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만 눈썹을 미는 것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눈썹을 민다는 화장문화 자체가 이미 헤이안시대부터 이어진 일본만의 특징적인 문화이며 그것이 바탕이 되어 나타난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일본에서만 눈썹을 미는 문화가 발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눈썹에 관한 선행연구나 문헌 등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렇다할 근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단지 분명한 것은 눈썹을 뽑는 화장이 시작된 헤이안 시대에 계급표현의 수단으로 눈썹을 뽑는 화장을 했으며, 그것은 남녀 귀족에 한정된 화장법이었던 점이다.<sup>38)</sup>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눈썹화장의 경우 눈썹을 다듬고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눈썹모양을 그려서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기본적인 틀은 현대와 다를 바가 없다. 에도시대에 눈썹을 뽑는 형태만 제외하면, 조선시대 후기와 일본의 에도, 메이지 시대의 눈썹화장법은 그대로 현대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 는 보다 발달된 도구와 보다 세련된 화장법으로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38) 日本風俗史学会(199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614

## 【참고문헌】

- 구인환 편(2004) 『옥단춘전』, 신원문화사, p.16
- 김민경(2009) '정조시대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화장문화(化粧文化)와 수발문화(鬚髮文化)의 비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8 No.1
- 김민경(2007) '高句麗 時代와 同時代 日本의 化粧문화와 髮形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Vol.2 No.3
- 金智勇(1991) 『한국의 女流 漢詩』, 여강출판사, p.340
- 김지희(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p.75
- 김춘득(2000)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178
- 김희숙(2000) 『(한국과서양)의化粧文化史 : 화장문화와 화장기법』, 청구문화사, p.205
- 村澤博人(2010) 『미인의 탄생 : 얼굴로 읽는 일본, 일본문화』, 너머북 p.48
- 빙허각 이씨 원저, 鄭良婉 옮김(2006) 『閨閣叢書』, 보진재, p.228
- 안중숙/ 김정림 '조선후기 미용문화와 토털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Vol.5 No.1
- 안현순/ 고정민(2010) '에도(江戸)시대 여성의 화장법과 두발양식 고찰' 한국디자인포럼 Vol.29
- 이상봉/ 배형자/ 이승민 '조선시대 화장재료의 효능과 활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Vol.5 No.1
- 이정균/정수영/김현남(2005) '한국여성의 눈썹화장 변화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Vol.1 No.1
- 임미애(2009) 『화장문화사』, 신정, p.148
- 전 선정 외(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301
-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301
- 曹斗鉉 역(1994) 『한국 女流 漢詩選』, 태학당, p.115
- 진형여/ 김희정(2009) '조선 전기의 메이크업과 동시대 중국과 일본의 메이크업 비교' 한국인체 예술학회지, Vol.10 No.4
-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2010) 『여용국전/어득강전/조충의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p.39
- 코리아나(2006) 『한국의 화장문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p.245
- 코리아나(2010) 『한국의 화장도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p.201
- 石上堅(1983) 『日本民俗大辭典』, 櫻楓社, p.367
- 櫻井徳太郎(1998) 『民間信仰辭典』, 東京堂出版, p.294
-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85~93
- 陶智子(2005) 『江戸美人の化粧術』, 講談社, p.106
- 日本風俗史学会(199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375
- 原田淑人(1987) 『古代人の化粧と装身具』, 刀水書房, p.57
- 樋口清之(1982) 『化粧の文化史』, 国際商業出版, p.89
- 平松隆円(2009) 『化粧にみる日本文化—だれのためによそおうのか?』, 水曜社, p.169

-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90) 『日本の化粧 -道具と心模様-』, ポーラ文化研究所, p.205
-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6) 『モダン化粧史 - 粧いの80年』, ポーラ文化研究所, p.29
-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5) 『眉の文化史』, ポーラ文化研究所, p.178
-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 ポーラ文化研究所, p.69
-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近代の女性美 -ハイカラモダン・化粧・髪型-』, ポーラ文化研究所, p.139
- 村沢博人(2007) 『顔の文化誌』, 講談社, p.81
- 村田孝子(2007) 『江戸三〇〇年の女性美 -化粧と髪型』, 青幻舎, p.37
-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2』 小学館 p.117
-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落窪物語・堤中納言物語』 小学館 p.497
-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枕草子』 小学館 p.127
-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竹取物語 伊勢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 小学館 p.297
-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日記』 小学館 p.256
-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井原西鶴1』 小学館 p.408
- 2008 『世界大百科事典』 「毛抜き」, 平凡社, p.195

## 要 旨

本稿では朝鮮時代後期の眉化粧と、朝鮮時代後期と同じ時期にあたる日本の江戸時代と明治時代の眉化粧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両国の眉化粧は、両国の緊密な影響関係と中国からの影響などのため様々な面で非常に似ている。

朝鮮時代後期と江戸・明治時代の眉化粧には眉墨というのが使われていたが、その材料も基本的に似ている。さらに、現代のようにアイペンシルがなかったため、眉墨を筆で描くことで眉を表現した点も同じである。

眉を整理してきれいにする時使われた道具の場合、朝鮮でも日本でも毛抜きというものが最も一般的に使われたことが様々な文献から確認できる。また、朝鮮時代後期と江戸時代後期になるにつれて剃刀が広く普及して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に道具についても同じ傾向を見せる。

眉の形についても多様性が存在したという面で、朝鮮も日本と同じであると言える。眉の形が千篇一律に同じ形であったのではなく、朝鮮では様々な眉の形が存在し、日本でも顔に合わせた様々な形の眉を描いてい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ことは様々な文献と当時の絵画から確認できる。

朝鮮時代後期と同時代の日本の眉化粧で一番の大きい違いと言え、日本では江戸時代に子供を産んだ女性が眉を全部剃ってしまったことである。女の人も結婚前は顔の形に合わせて眉を整えてきれいに描いていたが、子供を出産したらその証で眉を剃る風習があったのである。朝鮮にはこのような風習は見当たらない。

しかし、子供の有無によって眉を剃る江戸時代の独特な風習も、明治時代になって近代化されるにつれて完全になくなってしまい、現在は韓国も日本も西洋の影響で同じような眉化粧が行われている。

キーワード：眉、化粧、眉墨、眉化粧、朝鮮後期、江戸時代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